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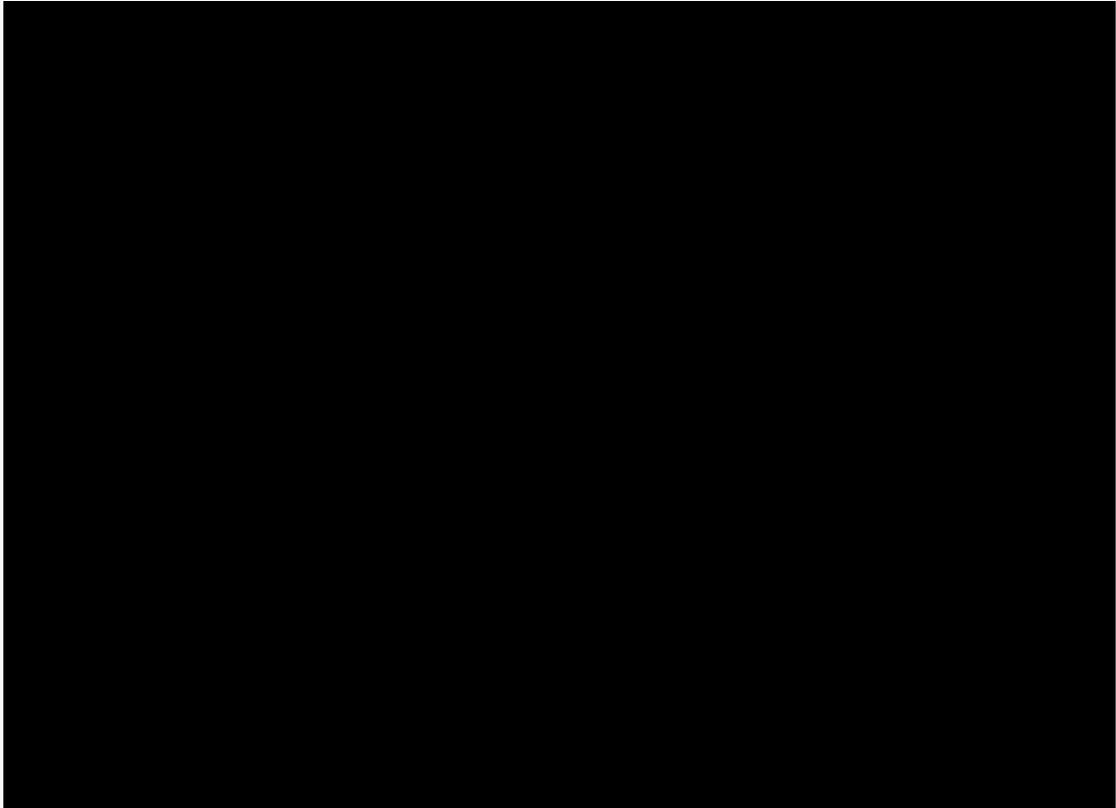
쌍죽리·雙竹里

쌍죽리·雙竹里

<구연자 : 아산시 엽티읍 쌍죽리 임재만씨>

쌍죽리는 엽티읍의 한 자연마을이며,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마을은 총 157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59호이다. 주민의 8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축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래 아산군 근남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상·중·하의 세대를 이루었으므로 대실, 죽곡 또는 삼대실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죽리, 중죽리, 하죽리를 병합하여 쌍죽리라 하여 엽티읍에 편입되었다. 쌍죽리는 대나무가 두 개 서 있는 모양이라 해서 불리어지게 된 지명이다.

<쌍죽리 위치도>



☒ 삼대실 마을(쌍죽리)

쌍죽리는 삼대실이라 부르며, 위, 아래, 가운데, 대실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윗대실은 맨 위의 부락으로 상죽리라 하고, 가운데 대실은 대실 중앙에 있는 마을로 중죽리, 아래대실은 맨 아래 부락으로 하죽리라 부른다.

<조사당시 쌍죽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삼대실은 위도 36-49-30, 경도 126-58-40인 지역으로 삼대실은 읍소재지의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600m 되는 곳에 아랫대실이 있고, 아랫대실에서 윗대실까지는 북동쪽으로 750m 정도이다. 윗대실은 202번 도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현 황

삼대실의 인구는 남자 77명, 여자 80명으로 총 157명이다. 총 59호가 살고 있는데, 84%가 농업에 종사하고, 6%는 서비스업, 10%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분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삼대실마을	157명	77명	80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축산업	서비스업
삼대실마을	100%	84%	10%	6%

농경지 현황은 논이 17ha, 밭이 20.3ha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병충해 방제기, 이앙기 및 트랙터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삼대실마을	37.3ha	17ha	20.3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 시설
삼대실마을	1개소	1개소	-

마을에 살고 있는 성씨 분포는 박씨가 28%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이씨 18%, 김씨 10% 정도 되며 그 밖의 성씨도 약간씩 분포한다. 연령층은 50대~60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 씨	이 씨	임 씨	홍 씨	신 씨	기 타
삼대실마을	59호	6호	11호	16호	3호	4호	19호

- 최고령자

삼대실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 갑복씨로 94세의 고령이시며 활동이 불편하시다.

3) 자연 경관

삼대실 마을이 크게 세 부락으로 나뉘는데 윗대실쪽은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집들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논은 대부분 산골짜기에 있으며, 평지는 거의 없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다.

4) 변 천

쌍죽리는 본래 아산군 근남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상·중·하의 세대를 이루었으므로 대실, 죽곡 또는 삼대실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죽리, 중죽리, 하죽리를 병합하여 쌍죽리라 하여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삼대실 마을에서는 터를 잡은 사람은 임씨인데 지금은 서너집만이 살고 있다. 현재까지 임씨가 15대째 살고 있으니 마을의 형성은 서기 1550년경 약 450년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며, 지금은 박씨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다.

6) 지 명

·대실 : 대나무가 많이 있고 지형이 상·중·하의 세 대를 이루었으므로 대실 또는 삼대실이라 함.

·아랫대실 : 대실 아래쪽에 있는 마을.

·웃대실 : 대실 위쪽에 있는 마을.

·괴인들 :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가 괴어져 있어 누군가 올려 놓은 듯한 모습인데 바위가 너무 커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임.

·국사봉 : 대실 뒤쪽에 있는 산으로 정상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전쟁시 그곳에서 국사를 논하였다하여 이곳을 국사봉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다른 마을과의 경계이며, 대실 뒤의 산으로 매우 수려함.

·가운데 대실 : 대실 중앙에 있는 마을로 현재도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 화살촉, 담배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위 대실도 같음.

·매봉 : 삼방골에 있는 산봉우리로 매처럼 생겼다하여 불리게 되었음.

·심방골 : 아랫대실 서쪽 너머에 있는 골짜기.

·연못 : 아랫대실 앞에 있는 못으로 이곳에 연을 심었으며, 뒷산의 형세가 풍수지리상 갈마음수라 이곳에 연못을 팠다고 함.

·효자문 : 마을에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많아서 세우게 되었다고 함.

7) 전 설

마을에 전해오는 특별한 전설은 없었지만, 마을에 있는 해명사에 불상에 관한 의미있는 일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十 해명사 불상에 관한 일화

내력을 살펴보면 충남 목천에 자리한 독립기념관 바로 너머에 대한민국 최대의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려고 하는데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공사도중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오래된 고불이 발견되어 이운봉송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 고불이 발견된 후 여러 사람들이 심하게 다치고, 공사도중 죽으므로 아무도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공식날은 다가오고 어찌할바를 모른채 고민에 빠져 있던 중 이 소식을 들으신 해명사 스님께서 '부처님을 뵈기만 해도 삼세(三世)의 오무간 죄를 과하거늘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하시고 대중과 더불어 예경한 후 사방에 향초를 사르고 밝혀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 한편 스님께서 부처님을 모신 뒤 오색 찬란한 쌍무지개가 떴고, 그러기를 삼일만에 범신불인 대방광불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해명사로 오시게 된 것이라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현재 마을에서는 설이 지나고 길일을 선택하여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마을 대동계로 마을의 단합과 애경사시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결성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마을에 있는 종교단체로는 해명사로 오래된 고사찰은 아니지만 불상에 관한 의미 있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기도 하다. 범신불 주위에는 그 양옆으로 두분씩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들 역시 해명사를 둘러싼 동서남북 사방에서 발견되어 모시게 되었으며, 이 불상들 역시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해명사의 신도수는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11) 공장현황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부적합하다.

12) 마을의 특징

삼대실 마을은 전체적으로 비탈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자나무가 200~300여년이 된 나무가 있으며, 효자문이 마을에 있고, 아랫대실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으며, 1988년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었으며, 삼대실에는 다른 마을에 비해 산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고, 꿩과 노루가 뛰어다니고, 오소리, 고슴도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정겹고 수려한 마을 모습을 지니고 있다.